

4월 11일(월) / 삼상4-6

▶**내용요약:**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가문이던 엘리 집안이 몰락하는 사건들이 이어진다. 5장은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독종과 제앙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된다. 6장에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벤세메스로 돌아오는 과정과 함께 불경하게 언약궤를 들여다 본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

▶**질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선 곳은 벤세메스에 사는 누구의 밭이 있는가?(6장)

▶**생각하기:** 언약궤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고 지키시는 존귀한 분임을 알게 된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빼앗고는 전리품을 얻었다고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고 드러내신다. 이어 불경하게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치신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겸손하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자!

4월 14일(목) / 삼상15-17

▶**내용요약:** 15장에서는 사울이 아말렉과 그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버리신다. 1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데 사무엘은 그의 집을 방문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 사울과 대비하여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질문:** 말씀을 읽고 괄호를 채우세요. “순종이 ()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15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하기에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이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인간의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거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파하며 후회하시는 부족함은 있지 않은가?

4월 17일(일) / 삼하10-12

▶**내용요약:** 10장에서 다윗은 암몬 자손의 새로운 왕이 된 하논에게 조문사절을 보내지만 오히려 모욕을 당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암몬 자손과 그 동맹국인 아람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둔다. 11장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는 동안 다윗이 왕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를 저지르며 이를 무마하고자 우리아를 전쟁에서 소환하지만 자신이 세운 계략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결국 그를 최전선에

4월 12일(화) / 삼상7-10

▶**내용요약:** 7장에서는 사무엘의 지도 아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운동을 한다. 집회동안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둔다. 8장은 사무엘 아들들의 부도덕과 부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한다. 9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아 세워지고 10장은 사울이 왕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선택받는 모습이 나온다.

▶**질문:**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인가?(7장)

▶**생각하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라고 말씀하신다. 출애굽과 사사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채우셨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왕이 없다는 불평만 한다.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에서도 작은 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4월 15일(금) / 삼상18-21

▶**내용요약:** 18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지만 사울의 시기로 그의 대적이 된다. 19장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로 인해 다윗이 여러 위기에 처한다.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피신하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우정이 돋보인다. 21장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체가 되어 늑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 먹을 것을 해결하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하지만 미치광이로 가장해서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난다.

▶**질문:** 다윗이 늑에서 아히멜렉을 만날 때에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 에돔 출신이며 사울의 목자장은 누구인가?(21장)

▶**생각하기:**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20:17)라고 표현한다. 결국 두 사람은 처한 상황으로 인해 우정을 평생 나눌 수는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20:42)는 두 사람 사이의 맹세는 이후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다윗이 돌보면서 성취된다. 과연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배치하여 전사하게 한다. 12장은 다윗이 행한 범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단 선지자가 든 비유와 책망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지만 그 벌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병들어 죽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게 하심으로 다윗의 후사를 잇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

▶**질문:**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신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은?(12장)

4월 13일(수) / 삼상11-14

▶**내용요약:** 11장은 사울이 왕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암몬 자손에는 승리를 거두고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관용을 베푼다. 12장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권면들이 기록된다. 13장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임의로 번제를 드렸다가 책망을 받는다. 14장은 왕자 요나단으로 인해 블레셋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나 사울왕의 경솔한 맹세로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된다.

▶**질문:** 말씀을 읽고 괄호를 채우세요. “여호와와 () 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14장)

▶**생각하기:** 사무엘은 고별설교에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12:23)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도자의 가장 우선되는 덕목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지금 기도를 부탁한 언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고 있지는 않은가?

4월 16일(토) / 삼하7-9

▶**내용요약:**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시고 그의 왕국을 굳건히 세울 것을 약속하신다. 8장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대적들과 싸워 승리함으로 나라를 안정시킨다. 9장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키고자 므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모습이 나온다.

▶**질문:** 다윗의 부하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된 스루야의 아들은 누구인가?(8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뜻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울 것을 약속하신다. 이에 대해 다윗은 감격하며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7:18)라고 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 고백이 되기를!!!

▶**생각하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음모로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11:27)고 성경은 기록한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짓는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도 오랜 기간 참고 인내하신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이를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인내하고 참고 계심을 기억하며 회개하도록 하자.